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이란 전쟁 여파로 트럼프의 경제 지지도 떨어져

[금융]
- Bloomberg: 미 증시, 오일가 급등에도 반등해
- Bloomberg: 국채 투자자들 CPI 상승에 베팅…연준 금리 인상 압박
- Bloomberg: AI 공포에 미 사무펀드의 테크 투자 70% 폭락

[미국 생활]
- CNBC: “미 은퇴자들,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할 위험 있다”

[이란 전쟁]
- Bloomberg: 트럼프의 휴전 요구에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 중단

[오일]
- WSJ: 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 후에 오일 급등
- WSJ: 사우디, 아시아행 유가 가격 낮춰… 중국 수요 줄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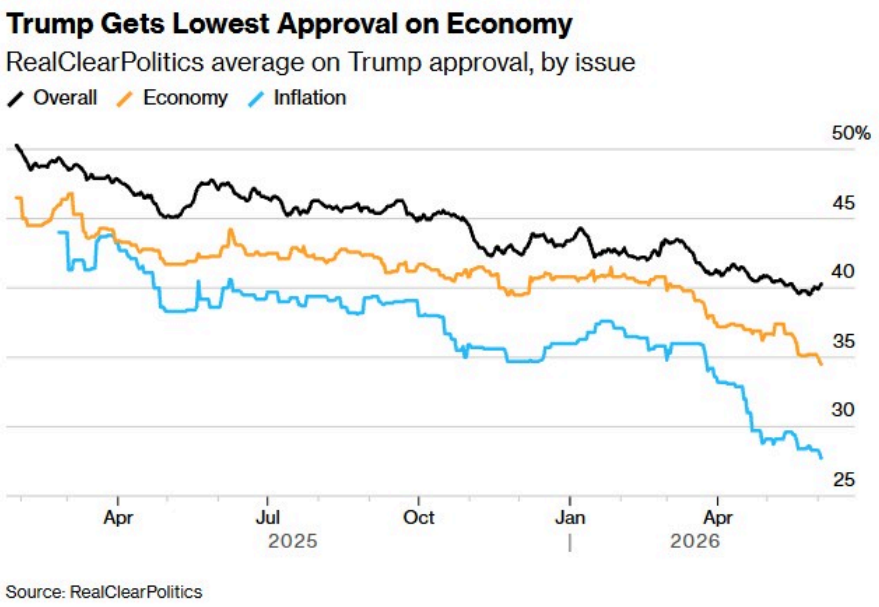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WSJ: 엔비디아, WSJ 선정 '미래 최고 기업' 1위
- WSJ: 식품사 PepsiCo, 아리조나서 자율주행 트럭 35대 운행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Trump’s Economy Polling Slides as Iran War Saps His Superpower
이란 전쟁 여파로 트럼프의 경제 지지도 떨어져

- 미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과 4%대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로 인해,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.
- 백악관은 미국인들을 위한 세금 환급액 증액과 여유있는 국내 에너지 생산량을 내세우며 민생 안정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.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는 트럼프의 돌출 발언들로 약화하고 있다.
- 현재 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과 트럼프에게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. 이번 중간선서 하원이 공화당 다수당의 지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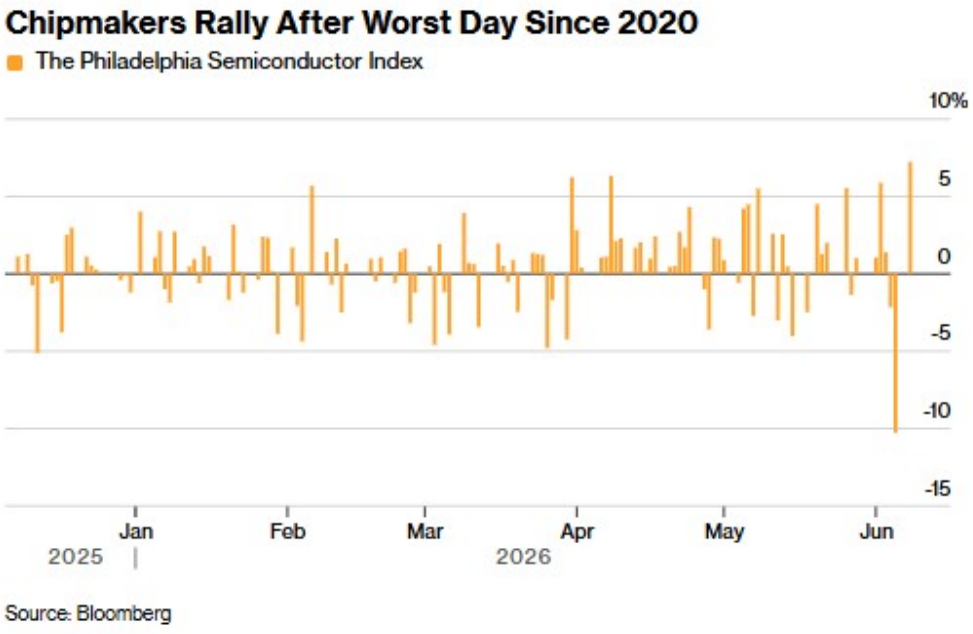


기사

[금융]

BloombergK US Stocks Bounce Even as Iran Tensions Lift Oil
미 증시, 오일가 급등에도 반등해

- AI 낙관론과 견고한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뉴욕증시가 반등했다.
- 기술주 주도로 S&P500 지수가 1% 가까이 상승 중이고, 나스닥 100지수는 1.5% 이상 급등했다.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지수는 월요일 2%와 10% 가까이 폭등하며 2020년 이후 최악이었던 지난 금요일 세션의 폭락을 만회했다.
- 사상 최고가 행진 후 잠시 숨을 고르던 증시는 매수 세력이 다시 돌아오면서 활력을 되찾았고, 강세장 지속 전망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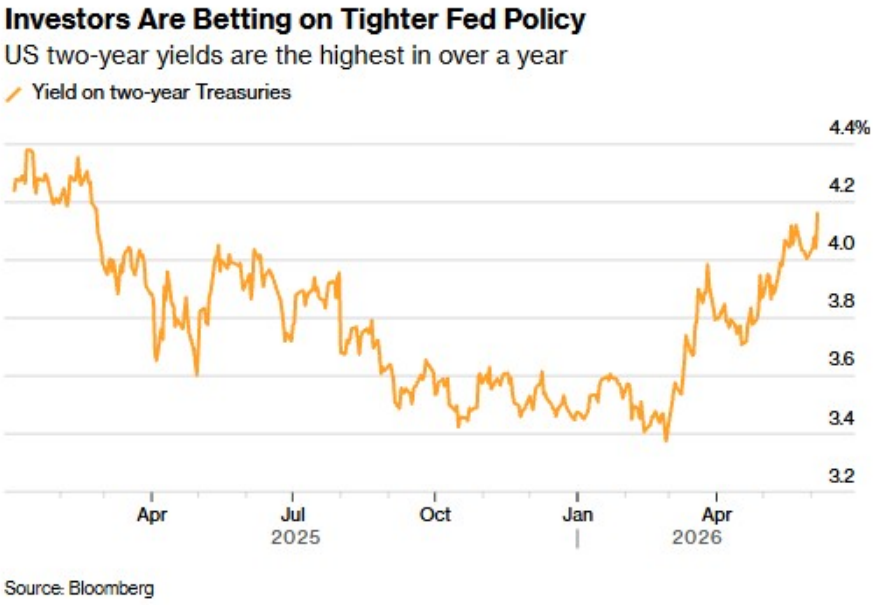


기사

Bloomberg: Bond Traders Bet on a CPI Surge That Bolsters Case for Fed Pivot

국채 투자자들 CPI 상승에 베팅…연준 금리 인상 압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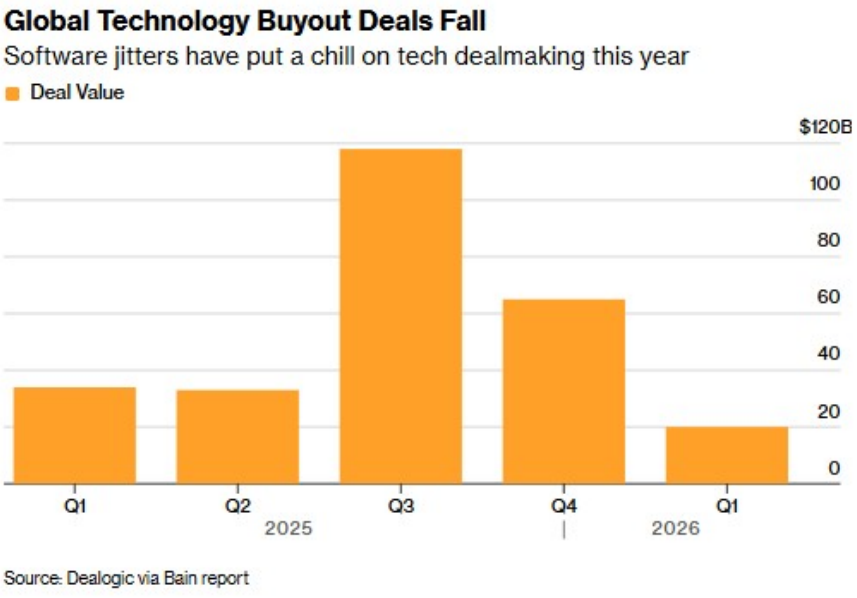
- 국채 트레이더들이 수년 만에 가장 강력한 물가 상승 압력을 예상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.
- 투자자들은 다음 주 수요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, 이번 주 수요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(CPI)를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연준의 '매파적 전환(Hawkish Pivot)'에 미리 대응하는 모습이다.
- 그리고 인플레 가속화가 지표로 확인될 경우, 연준이 정책 성명서에서 기존의 '완화 기조(Easing bias)'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



기사

Bloomberg: AI Fears Spur 70% Plunge in Private Equity Tech Deal Value
AI 공포에 미 사무펀드의 테크 투자 70% 폭락

- 규모가 큰 딜(Deal) 감소로 인해 1분기 글로벌 사모펀드(PE)의 테크 부문 인수 규모가 200억 달러로 급감했다고 베인앤드컴퍼니(Bain & Co.) 보고서는 밝혔다.
- 이 기간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치는 약 8% 하락해, 다른 업종의 평균 하락폭(0.3%)을 크게 웃돌았다.
- 베인사는 사모펀드사들이 AI가 가져온 위협에 적응해야 하며, 기존 투자 자산을 지키면서 동시에 향후 신규 투자 시 AI 기술의 파급력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.



기사

[미국 생활]

CNBC: Retirees fear running out of money. Many are spending too little instead
“미 은퇴자들, 제대로 돈을 쓰지 못할 위험 있다”

- 은퇴자들은 대개 저축한 돈을 너무 빨리 쓰거나 과도하게 소비할 위험에만 신경 쓰곤 한다.
- 하지만 재무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. 바로 너무 돈을 아끼다가 제때 쓰지 못하는 '과소 소비(Underspending)의 위험'이다.
- 전문가들은 평생 모아둔 은퇴 자금을 '어떻게 현명하게 꺼내 쓸 것인가'를 결정하는 것이, 어쩌면 은퇴 후 재무 계획에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.

기사

[이란 전쟁]

Bloomberg: Iran Ends Latest Strikes on Israel as Trump Urges Peace
트럼프의 휴전 요구에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 중단

- 트럼프가 “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즉각적인 휴전을 원한다”고 경고한 후 양측은 서로 간의 공격을 중단했다.
- 이란은 “미국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”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은 "홍해 내 이스라엘 선박 운항을 전면 금지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현재 브렌트유는 중동의 긴장속에서 약 5% 급등하며 배럴당 98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.

기사

[오일]

WSJ: Oil Prices Jump After Iran and Israel Exchange Strikes
이란과 이스라엘의 교전 후에 오일 급등

- 이란·이스라엘의 교전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했다.
- 브렌트유는 월요일 장 중 한때 배럴당 $98까지 급등한 후 현재 약 2% 상승 거래 중이다.
- 이번 사태는 4월 휴전 이후 첫 직접 충돌로,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화학 시설을 타격하면서 갈등 고조 및 유가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.

기사

WSJ: Saudi Arabia Cuts July Crude Prices for Asia As Demand Slows
사우디, 아시아행 유가 가격 낮춰… 중국 수요 줄어

-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향 석유의 7월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.
- 이번 인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둔화에 따른 것이다. 최근 중국 내 정제 활동 위축으로 원유 수입량이 급감하자 사우디 측이 가격을 낮춰 대응했다.
- 한편, OPEC의 7월 증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원유 공급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.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우려가 여전히 전 세계 공급망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Nvidia Takes the Top Spot in the 2026 List of Best Companies for the Future
엔비디아, WSJ 선정 '미래 최고 기업' 1위

- 엔비디아가 기술 기업들이 대거 상위권을 차지한 WSJ의 제1회 '미래 최고 기업(Best Companies for the Future)' 평가에서 1위에 올랐다.
- 이번 순위는 S&P500 지수 편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준비 태세, 혁신성, 재무 건전성 등 6개 분야의 30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매겨졌다.
- 전체 상위 100개 기업 중 3분의 1을 기술 제조 및 서비스 기업이 차지했으며, 특히 최상위 25개 기업 중 18곳이 이들 기술 분야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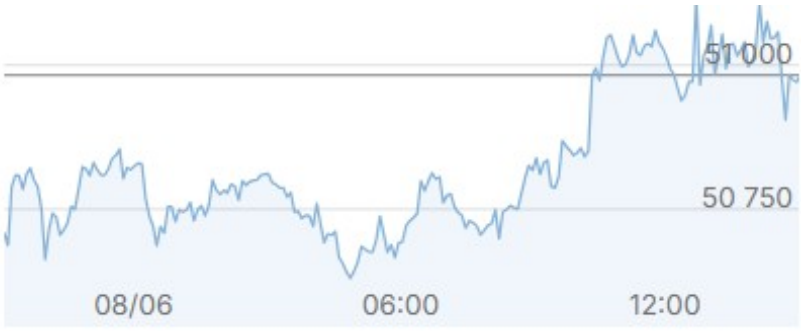
기사

WSJ: Driverless Trucks Are Here—and They're Delivering Bags of Doritos
식품사 PepsiCo, 아리조나서 자율주행 트럭 35대 운행

- 미국의 글로벌 기업 펩시코(PepsiCo)는 레이즈, 치토스 등 스낵 사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종합 식음료 기업으로 성장했다.
- 음료에만 집중하는 라이벌 코카콜라와 달리 "과자와 음료의 동시 구매"를 유도하는 복합 시너지 전략을 구사하며 매출 규모에서 종종 우위를 점하고 있다.
- 최근 펩시코가 대규모 자율주행 트럭 도입에 나선 배경도 이러한 유통 특성과 맞닿아 있으며, 매일 전 세계에 방대한 양의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만큼 물류 효율화와 운송 비용 절감을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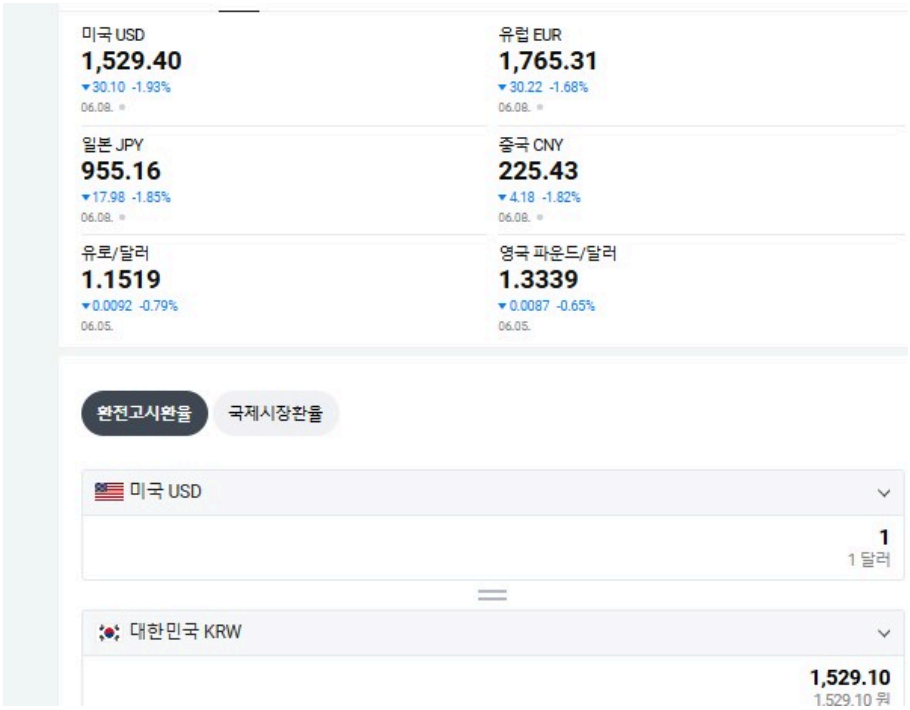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0,974.90	+108.1	+0.21%
US 500	7,449.40	+65.6	+0.89%
Dow Jones	50,981.42	+114.64	+0.23%
S&P 500	7,452.09	+68.35	+0.93%
Nasdaq	26,125.53	+416.10	+1.62%
S&P 500 VIX	18.22	-3.35	-15.53%
Dollar Index	99.927	-0.124	-0.12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	-26/32	5.027	0.028
10-Year Note	4.375	-3/32	4.560	0.038
7-Year Note	4.25	-24/32	4.425	0.037
5-Year Note	4.125	-1/32	4.296	0.028
3-Year Note	3.875	-1/32	4.220	0.024
2-Year Note	4	0/32	4.168	0.021
1-Year Bill	0	0/32	3.844	0.005
6-Month Bill	0	0/32	3.805	0.010
3-Month Bill	0	0/32	3.718	0.000
1-Month Bill	0	0/32	3.676	0.006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